

‘청산도 구들장논’ 세계 관개 유산 등재

400년 역사 지닌 고유 농업기술 가치 인정 농어촌공사 등 협력 결실...가치 보존 노력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에 이어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세계총회에서 ‘청산도 구들장논’이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제관개배수위원회를 대신해 지난 11일 완도군청을 찾아 인증패와 인증서를 완도군에 전달했다.

계단식 논으로 400여 년의 역사성을 지닌 청산도만의 고유 농업기술이다.
뿐만 아니라 배수가 지표면에서만 흐르는 일반 계단식 논과 달리 지표면 아래에 돌을 쌓아 만든 암거 구조의 통수로를 통해 관개 관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경작지 필요에 의한 물관리가 가능해 논과 밭농사를 번갈아 할 수 있게 했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지난 2013년 국

가중요농업유산 1호, 2014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은 ▲100년 이상의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 활동 ▲고유한 농업 기술과 기법 보유 ▲농업 환경과 연계된 전통 농업 문화의 보유 등 국제관개배수위원회가 정한 요건에 부합돼 등재됐다.
국내에서는 2016년 김제 벽골제, 수원 축만제, 2017년 당진 합덕제, 수원 만석거, 2020년 고성 뚝방, 2021년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가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에 등재됐으며 청산도 구들장논은 국내

에서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등재는 한국 관개배수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을 이끈 결과물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산도 구들장논의 가치를 세계적인 기구로부터 또 한 번 인정받게 돼 뜻 깊다”며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등재를 계기로 문화 유적지 등의 보존 종합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규욱 기자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이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돼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제관개배수위원회를 대신해 완도군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완도군 제공

“한걸음 도약하는 1004섬 주민 소득 연계사업 온 힘”

2022 새해설계

박우량 신안군수



“1004섬 신안군에 풍부한 햇볕과 바람을 활용해 ‘에너지기본소득’을 창출하고 주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지난 3년여 동안 섬마다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밑그림을 그리고 완성하기 위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씀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의 불편과 각종 피해를 참아내며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준 공직자와 군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군수는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별 국정운영 방향으로 ▲군민 소득증대사업 지속 추진 ▲세계적 품목 생산 품목 생산 ▲1도 1주지역 사업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한 기본소득 ▲해양 문화 예술의 소프트웨어 구축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을 때 주민복지 ▲주요 지역개발 기반 사업 중단 없는 추진 ▲명문교육 육성 ▲늘 푸른 생태환경 조성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구현 등을 꼽았다.

지난 2018년 박우량 군수가 취임 직후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공약이 결실을 거둬 안좌도, 자라도 주민들에게 분기별 1인당 51만~12만원의 배당금이 3분기에 걸쳐 지급됐다. 이달 말에는 지도 주민들에게, 내년에는 사육도 주민들에게

될 예정이다.
또 신안군은 교통복지 실현과 주민들의 24시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개선,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칠 목표도 확고하게 세웠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관광의 별 등 잇따른 행보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퍼플섬을 비롯한 아름다운 섬 가꾸기도 씀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꽃이 만발한 섬, 숲이 울창한 섬, 겨울에도 꽃 피는 섬을 만들어 사계절 꽃 피는 1004섬 조성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의 갯벌이 곧 한국의 갯벌이라는 자긍심으로 갯벌의 보전과 관리, 갯벌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1도 1주지역 사업과 사계절 꽃 피는 1004섬 추진을 통해 섬에 꿈을 입혀 가고, 연륙·연도교 사업도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하세요” 완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영암, 올해부터 자부담 면제...20만원 전액 지원

6억7천만원 투입...주거 환경 개선

영암군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문화활동 기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까지 대상자가 납부했던 자부담 2만원을 없애고 2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이다.
대상자는 농(어·임)경영체 등록 및 농

지원부 등을 통해 실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점이 확인돼야 하며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건설팀에서 신청받으며 발급받은 카드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영암군에서 지난해 여성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누린 여성농업인은 4,314명으로 8억 6,300만원을 지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완도군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관내 건축물 1만 2,700여 동 중 슬레이트 해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 5,200여 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쳤다.
이에 군은 사업비 6억7,3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162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자부담 5동, 비주택 슬레이트는 참고 및 측사에 한

해 15동 등 총 18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의 경우 1동 당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1동 당 540만 원, 지방 개량은 1동 당 439만 6,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철거·해체 작업을 실시한다. /완도=최규욱 기자

해남,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속도’

해남군이 생활체육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는 파크골프의 대중화를 위한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삼산면 봉학리 삼산천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해 새롭게 단장했다.
총 예산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4,950㎡의 면적에 잔디를 심어 흙을 추가하고 부족한 부대시설인 벤치, 조경수, 간이화장실, 연습장, 주차장 등 시설을 보완했다.

파크골프는 몸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적정 활동량을 보장할 수 있는 운동으로, 기존 골프의 규모만 축소하면서도 흥미 있게 운동할 수 있어 노인층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동호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산이면 초소리 면소재지 산이중학교 인근 군유지 및 도유지 1만 3,250㎡에 산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강진 MS식자재마트, 이웃돕기 성금 기탁

강진 MS식자재마트(대표 최재두)가 임인년 새해를 맞아 강진군에 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MS식자재마트 최재두 대표는 강진, 강홍, 완도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돌봄 취약계층 및 독거 어르신 280가구



강진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강진경찰서는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사상황실에는 수사관 4명이 배치돼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하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



목포무안신안축협, 백미 1천포 전달

무안군은 최근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문만식)으로부터 백미 10kg 1,000포를 기탁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목포무안신안축협은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김장김치와 사랑의 쌀을 기탁하는 등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을 기탁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다.
문만식 조합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의 쌀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받은 쌀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무안=박주현 기자